

이대로가 아닌 이대로

크레용하우스 | 안오일 글 / 김선배 그림

표지 탐색하기

<이대로가 아닌 이대로> 책 표지를 자세히 살펴봅시다.

[책을 읽기 전에 생각해 보기]

1) 책 앞표지에는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나요?

⇒

2) 책 앞표지에 제시된 인물의 표정은 어떠한가요?

⇒

3) 책 제목 '이대로가 아닌 이대로'를 통해 상상해볼 때, 이 책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 것 같나요? 또한 책 제목을 보고 궁금한 점은 무엇인가요?

⇒

4) 책 뒷표지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습니다.

“넌 도대체 끝까지 하는 게 뭐냐?”

대로는 간단한 퍼즐도 완성해 본 적이 없어요. 피아노 학원, 태권도 학원에 다니다가도 금방 싫증 나서 포기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대로는 나무 속에 떨어져 갇혔어요. 다람이는 시험에 통과해야만 이곳에서 나갈 수 있다고 말하지요.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면 애룡이처럼 애벌레가 되어 살아야 한대요. 과연 대로는 집으로 갈 수 있을까요?

이 내용을 읽고, 느낀 점이나 궁금한 점은 무엇인가요?

⇒

이대로가 아닌 이대로

크레용하우스 | 안오일 글 / 김선배 그림

*<이대로가 아닌 이대로> 전체를 읽고 나서 푸세요.

어휘력 쑥쑥 키우기

1) (가)~(마)는 <이대로가 아닌 이대로>에서 발췌한 문장이고, 아래 [보기]는 (가)~(마)의 빈칸에 들어갈 낱말의 기본형과 뜻을 국어사전에서 찾은 것입니다. [보기]를 참고하여 (가)~(마)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넣으세요.(문맥에 맞는 꼴로)

(가) 내가 놀리자 애룡이는 두 눈을 () 쏘아봤다.

(나) 여기에서 빨리 나가려면 어떻게든 저 녀석을 () 해.

(다) 나는 물컹하게 손에 잡혔던 게 쥐었다는 사실에 다시 한 번 몸이 ().

(라) "통과할 때마다 이렇게 () 거야? 그러니까 민희한테 별로라는 소리나 듣지."

(마) 지나가는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 어떻게 해서든 내려가려고 발을 나무() 쪽으로 뺐었다.

[보기] ① 동치 : 큰 나무의 밑동. ② 부릅뜨다 : 무섭고 사납게 눈을 크게 뜨다.

③ 구슬리다 : 그럴듯한 말로 꾀어 마음을 움직이다.

④ 오싹하다 : 몹시 무섭거나 추워서 갑자기 몸이 움츠러들다.

⑤ 징징대다 : 못마땅하여 계속하여서 자꾸 보채거나 짜증을 내다.

2) 다음 문장에서 ㉠에 들어갈 한자성어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나는 눈을 넝쿨에 바짝 대고 영킨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살살 풀었다. 적을 알면 (㉠)(이)라고 선생님이 말했다.

① 지피지기(知彼知己)

② 적반하장(賊反荷杖)

③ 타산지석(他山之石)

④ 이심전심(以心傳心)

⑤ 백전백승(百戰百勝)

이대로가 아닌 이대로

크레용하우스 | 안오일 글 / 김선배 그림

*<이대로가 아닌 이대로> 전체를 읽고 나서 푸세요.

어휘력 쑥쑥 키우기

다음은 <이대로가 아닌 이대로>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가) 아이들이 짜려보고 있는지 뒤통수가 따가웠다. 하지만 할 수 없다.

(나) ① 오늘 숙제는 네 명씩 한 조가 되어 애벌레를 관찰하는 거다. 생김새나 움직임 잘 관찰해서 적어 내야 한다. 하지만 가만히 앉아서 애벌레를 계속 지켜보는 건 정말 짜증 나는 일이다. ()가 근질거리어서 도저히 못하겠다.

② “무슨 생각이 떠오를까 싶어서 그러지. 이렇게 골똘히 뭔가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에 쥐가 날 거 같아. 그런데 꼭 알아내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드는 건 처음이야.”

(다) ‘애들아, (㉠)는 속담이 있단다. 아무리 위험하고 급한 상황이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차분히 생각하면 헤쳐 나갈 수 있다는 뜻이지.’

1) 다음 중 (가)의 밑줄 친 ‘따가웠다’와 문장 내에서의 의미가 같은 것을 고르세요.

- ① 모래사장의 모래가 따갑다. ② 매연 때문에 목이 따갑다.
③ 가시에 찢린 손가락이 따갑다. ④ 엄마의 시선이 따가워 숙제를 했다.
⑤ 따가운 햇살이 방안에 가득 들어왔다.

2) 다음은 (나) ①, ②의 밑줄 친 관용적 표현이 지닌 뜻입니다. 이를 참고하여 (나)

①, ②의 각 빈칸에 들어갈 말을 쓰세요. ① : _____ ② : _____

① : 한군데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고 자꾸 일어나 움직이고 싶어 하다.

② : 싫고 두려운 상황에서 의욕이나 생각이 없어지다.

3) (다)의 선생님 말씀을 참고하여, ㉠에 들어갈 속담을 쓰세요.

⇒ 호랑이 □□ □□□□ □□□ □□□□ 살 수 있다.

이대로가 아닌 이대로

크레용하우스 | 안오일 글 / 김선배 그림

* <이대로가 아닌 이대로> 전체를 읽고 나서 푸세요.

국어 문법 실력 쑥쑥 키우기

다음은 <이대로가 아닌 이대로>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놀이터에 갔더니 아이들이 놀고 있었다. 나는 얼른 끼어들어 같이 놀았다. 놀다가 싫증이 나서 다른 거 하자고 몇 번 그랬더니 모두 **얼굴**을 찌푸렸다.

“야, 너 **자꾸** 왜 그래.”

“맞아, 꼭 못 놀게 **훼방** 놓는 거 같잖아.”

“난 재가 **같이** 놀자고 할 때부터 이럴 줄 알았어.”

아이들이 나를 쏘아보며 한마디씩 했다.

그때 언제부터 있었는지 민희가 가까이 다가왔다.

“넌 도대체 끝까지 하는 게 뭐냐? 순 ㉠ **변덕쟁이**. 이럴 거면 **방해**하지 말고 빠져.”

민희가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다.

1) 다음은 윗글에 제시된 낱말들입니다. 이 중에서 소리와 글자가 다른 낱말을 모두 찾아 동그라미를 하세요. (힌트. 소리 나는 대로 쓰면 원래의 글자와 다른 것)

놀이터 얼굴 자꾸 훼방 같이 방해

2) 밑줄 친 ㉠의 ‘변덕쟁이’의 뜻을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참고하여 ‘-쟁이’ 꼴의 말을 두 가지 이상 만들어 보세요.

- ‘-쟁이’의 사전적 의미 : ‘그것이 나타내는 속성을 많이 가진 사람’의 뜻을 더함.
- ‘변덕쟁이’의 사전적 의미 : 이랬다저랬다 하는, 변하기 쉬운 태도나 성질이 있는 사람.

⇒

이대로가 아닌 이대로

크레용하우스 | 안오일 글 / 김선배 그림

*<이대로가 아닌 이대로> 전체를 읽고 나서 푸세요.

독해력 쑥쑥 키우기

다음 <이대로가 아닌 이대로>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그럼 어떡해. 처음에는 쉽고 재밌었는데 갈수록 어려운걸. 어려우니까 하기 싫어지는 걸.” / “제대로 하려면 어려운 과정도 참고 배워야지. 위인전에 나오는 위인들이 다 어려운 상황을 참고 견뎌서 훌륭한 일을 해냈다는 거 몰라? 유치원 다닐 때도 블록 맞추다 잘 안 되면 던져 버리고 간단한 퍼즐도 끝까지 완성한 적 없더니…… 후유, 그렇게 인내심이 없어서 무슨 일을 하겠냐? 그리고……”

(나) 이럴 때 아빠가 있으면 좋은데…… 엄마하고는 얘기가 잘 안 통하지만 아빠하고는 좀 통하니까 내 마음을 알아줄 텐데……

저번에 아빠가 왔을 때 아빠 부탁을 들어주지 않은 게 후회되었다. 마음이 답답할 때 산에 올라 아래를 내려다보면 마음이 확 트인다며 정상에 올라가 보자고 했는데 가지 않았다. 정상까지 오르는 게 지겹고 힘들기 때문이었다.

1) (가)~(나)에서 알 수 있는 ‘나’(대로)의 성격을 정리한 것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을 쓰세요.

‘나’(대로)는 맡은 일을 끝까지 해 내지 못하고 □□을 잘 내는 아이이다.

2) (가)에 드러난 ‘엄마’의 말에 담긴 의도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 것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 ‘엄마’의 의도를 완성하세요.



“어려운 일이더라도 □□을 가지고 참고 견뎌라!”

이대로가 아닌 이대로

크레용하우스 | 안오일 글 / 김선배 그림

*<이대로가 아닌 이대로> 전체를 읽고 나서 푸세요.

독해력 쑥쑥 키우기

다음 <이대로가 아닌 이대로>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너는 문지기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에서 나가는 방법을 알고 있을 거 아냐. 빨리 가르쳐 줘.” / “내가 아까 말했지? 네가 만들어야 한다고. 만들지 못하면 넌 평생 여기서 살아야 해.” / “평생? 그럼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 줘. 빨리.”

“시험을 통과해야 해.” / “시험이라니?”

“잠깐만, 너에게 주어진 시험이 뭐였더라…….”

다람이는 부스럭부스럭 주머니를 뒤졌다. 그리고 종이쪽지를 꺼내 펼쳐 보고는 큰 소리로 외치며 나에게 보여 줬다. / “진짜 나이테를 찾아라.”

(나) “너무 힘들어서 못 가겠어. 아이고, 나 죽겠네.”

㉠ “저렇게 ()가 없어서야……. 그런데 너 뒤를 한번 돌아보는 게 좋을걸?”

나는 다람이 말대로 뒤를 돌아보았다. / “으아악, 엄마야!”

올라왔던 계단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 나는 다람이 꼬리를 꼭 붙잡았다.

1) (가)에서 ‘나’(대로)가 시험을 통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쓰세요.



2) ㉠은 긴 계단을 끝까지 올라가지 못하는 ‘나’(대로)에게 ‘다람이’가 한 말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인지 쓰세요.

⇒

이대로가 아닌 이대로

크레용하우스 | 안오일 글 / 김선배 그림

*<이대로가 아닌 이대로> 전체를 읽고 나서 푸세요.

독해력 쑥쑥 키우기

다음 <이대로가 아닌 이대로>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나는 도움을 포기하고 다시 영킨 녀쿨을 조금씩 풀어 나갔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 힘들었다. 한 가지 일을 이렇게 오랫동안 해 본 적은 없었다. 땀이 나고 손이 떨렸다. 에잇, 짜증 나고 지루해!

“나 안 할래!” / 나는 풀고 있던 녀쿨을 던지면서 말했다.

(나) 구석에 처박힌 저 녀쿨을 어떻게 해서든 다 풀어야 한다. 안 그러면 내 몸이…… 애벌레로 변한 내 모습을 상상하니 끔찍했다.

아, 안 돼! 징그러운 애벌레가 될 순 없어. / 나는 녀쿨을 주워 다시 풀기 시작했다.

(다) 나는 힘을 내 나머지 조각들을 빈 자리에 끼워 넣었다. 마지막 조각을 넣을 때 다람이를 바라봤다. 다람이가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어 주었다.

완성된 퍼즐을 보자 믿기지가 않았다. 멋진 나무 한 그루가 짠 하고 나타난 것이다. 내가 이걸 다 맞추다니!

1) (가)~(다)에서 ‘나’(대로)가 나무 밖으로 나가기 위해 실시한 첫 번째와 두 번째 시험이 무엇인지 그림을 참고하여 쓰세요.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

2) (나)를 참고하여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면 ‘나(대로)’에게 일어날 일을 쓰세요.

⇒

이대로가 아닌 이대로

크레용하우스 | 안오일 글 / 김선배 그림

*<이대로가 아닌 이대로> 전체를 읽고 나서 푸세요.

독해력/사고력 쑥쑥 키우기

다음 <이대로가 아닌 이대로>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얼마 뒤 드디어 정상에 올랐다. 나는 바닥에 그대로 누워 버렸다. 숨이 너무 가빴다. 그때 어디선가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다. 파란 하늘이 아주 가까이 보였다.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다. 속상하고 억울했던 마음이 깨끗하게 씻겨 나가는 것 같았다. 아빠가 말한 게 이런 걸까? 다람이가 옆으로 와 누웠다.

㉠ “다람아, 내가 정상에 올라왔어.”

“내가 할 수 있다고 했잖아. 마음만 포기하지 않으면 못할 일이 없어.”

(나) 나는 진짜 나이테 그림을 들고 할아버지 앞으로 갔다. 할아버지는 그림을 받아 들고 찬찬히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내 어깨에 붓으로 뭔가를 그렸다. / “어, 할아버지 뭐 그리는 거예요? 도장 찍어 주는 거 아니에요?”

“허허, 이게 도장이야. 어깨에 작은 나이테를 그려 났으니 이제 무슨 일이든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다.”

1) (가)~(나)에서 ‘나’(대로)가 나무 밖으로 나가기 위해 실시한 세 번째 시험과 마지막 시험이 무엇인지 그림을 참고하여 쓰세요.



<세 번째 시험>



<마지막 시험>

2) ㉠에 담긴 ‘나’(대로)의 마음이 어떠한지 상황에 맞게 자신의 생각을 쓰세요.

⇨

이대로가 아닌 이대로

크레용하우스 | 안오일 글 / 김선배 그림

*<이대로가 아닌 이대로> 전체를 읽고 나서 푸세요.

사고력/창의력 쑥쑥 키우기

다음 <이대로가 아닌 이대로>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처음에는 풀어도 풀어도 그대로인 것 같더니 크기가 많이 작아졌다. 조금만 하면 끝이라고 생각하니 나도 모르게 울컥울컥 눈물이 차올랐다. 그러다가 끝내 엉엉 울어 버렸다. 옆에서 아슬아슬하게 지켜보던 다람이가 놀라서 말했다.

“왜 그래, 거의 다 했잖아.”

“응, 알아요. 그런데 다 끝나 가니까 울음이 막 나와. 기분이 이상해.”

“그건 뭔가를 끝까지 해내서 그럴 거야. 마음이 시원하게 확 뚫린 것 같지?”

(나) “엄마, 내 미술 가방 어딴거? 나 미술 학원도 다시 다닐 거야.”

“어유, 천천히. 그렇게 한꺼번에 하다가 또 금방 싫증 낼라.”

“아니야. 나 절대 그만두지 않을 거야.”

나는 밥한테 다짐이라도 하듯 밥을 힘주어 꼭꼭 씹으면서 생각했다.

1) ‘성취감’은 목적인 바를 이루었을 때 느낄 수 있는 기분을 말합니다. (가)의 ‘나’ (대로)도 목적인 바를 이루어 내서 성취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신도 ‘나’(대로)처럼 성취감을 느꼈던 적이 있는지 생각해 보고, 자신의 경험을 서술하세요.

⇒

2) (나)의 ‘나’(대로)처럼 자신도 끝까지 해 내고 싶은 일이 있는지 생각해 보고, 그 일을 위한 자신의 다짐을 서술하세요.

⇒

정답과 해설

예시 답안은 모범 답안과는 다릅니다. 참고만 하시고 너그럽게 채점하세요. ^^

1쪽	1) 한 남자 아이가 이를 드러내며 환하게 웃고 있고, 그 뒤로 그 남자아이의 얼굴이 다양하게 그려져 있다. 2) 남자아이가 웃는 얼굴, 화내는 얼굴, 짜증 내는 얼굴 등 여러 가지 표정의 얼굴이 그려져 있다. 3) (예시 답안) 지금 현재의 모습 외에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을 것 같다. / ‘이대로’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궁금하다. 4) (예시 답안) 나도 이 책의 주인공 ‘대로’처럼 금방 싫증 나서 포기하는 일들이 많았는데, 뒤표지 글을 보니 마음속으로 뜨끔했다. / ‘대로’가 정말로 애벌레가 되었는지 궁금하다. ‘대로’가 애벌레가 되지 않고 짐으로 갔는지가 궁금하다.
2쪽	1) (가) : 부릅뜨고, (나) : 구슬러야, (다) : 오싹했다, (라) : 징징댔, (마) : 둥치 2) ⑤
3쪽	1) ④ 2) ① : 엉덩이, ② : 머리 3)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4쪽	1) 놀이터(노리터), 같이(가치) 2) (예시 답안) 심술쟁이, 개구쟁이, 멋쟁이, 겁쟁이 등
5쪽	1) 싫증 2) 인내심
6쪽	1) 진짜 나이테를 찾아야 한다. 2) 끈기
7쪽	1) 첫 번째 시험 : 영킨 넝쿨 풀기 / 두 번째 시험 : 퍼즐 완성하기 2) 징그러운 애벌레가 된다.
8쪽	1) 세 번째 시험 : 산 정상까지 오르기 / 마지막 시험 : 진짜 나이테 찾기 2) (예시 답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산에 올라서 뿌듯할 것 같다. / 어려운 일을 해냈다는 생각에 자신감이 생겼을 것 같다. / 산 정상까지 오를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정상에 올라서 자신한테 놀라고 신기했을 것 같다.
9쪽	1) (예시 답안) 수영 강습을 받는데, 도착지까지 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선생님 몰래 수영하다 말고 중간에 걸어서 간 적이 있다. 그런데 어느 날은 다른 날보다 힘을 더 내서 팔을 젓다 보니 어느새 도착지에 와 있었다. 그때 나도 친구들처럼 힘을 내면 끝까지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2) (예시 답안) 3학년 권장도서 중에서 글자가 많은 책들은 끝까지 읽지 않았다. 그림이 많고 글자가 적은 책만 찾아서 읽었는데, 이제는 글자가 많은 책도 끈기를 가지고 끝까지 읽을 것이다.